



SARANG



시론 02

집(가정)과 주택의 개념차이로 본 우리건축

건축사 인터뷰 03

건축을 기록하고, 건축사의 자부심을 말하다. _ 김종왕 건축사(담 건축사사무소)

작품소개 04-06

익산남중동우체국 _ 정 욱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정건축

진도진길성당 조도공동체(공소) 신축공사 _ 조하니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해즈

HYPER STANDARD _ 김대영 건축사 / 인우 건축사사무소

뉴스 07-09

광주건축사회-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청렴 건축 업무협약 체결

광주·전남건축사회, 제2회·3회 통합추진위원회 개최

광주건축사회, 제23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그림그리기대회 개최

전남건축사회-함평군, 경제 부담 완화 재난 피해 주택 복구 '맞손'

전남 광양지역건축사회, 주거 지원·'찾아가는 건축학교' 운영

전남건축사회, 건축 비주얼라이제이션 AI 재직자 교육 성료

전북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전주지역건축사회, '건축물 해체 안전' 주제로 제2차 포럼 개최

전북도,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종합 10

행정구역은 하나가 됐지만, 건축행정은 아직 두 갈래

건축사자격시험, 2032년 종합 역량평가로 전면 개편

설계공모 11

우산동 뉴빌리지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설계공모

독자광장 12

한 편의 시 _ 세한도의 노송

한 장의 사진

책 소개 _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건축 문화 사랑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26.8월호(201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발행인 : 강필서, 이경일, 이성열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집(가정)과 주택의 개념차이로 본 우리건축



정종민 논설위원

명인 건축사사무소 대표
(전남광주시 순천)
myarc3500@hanmail.net

- 1997 개업 - 현재
국립 순천대 석사,
박사수료
창원 경남대학교,
순천 청암대학교 겸임
교수, 출강
- 전국 사찰, 고택, 향교,
관아를 15여 년 간
300여 곳 답사함
- 국립 순천대 평생교육원
에서 한국학, 전통문화
탐방지도사 과목을 강의
- 전남도 한옥자문위원,
순천시축제위원회 위원,
도시재생전문위원
- 논문 : 건축기획방법론에
대한 연구(2002, 순천대)
- 저서 :
『좋은한옥』
(2012, 전남도청 공저)
『다시읽는 순천인문학』
(2018, 늘보기학)

인류는 구석기시대 동굴에서 살다가 신석기시대 움집을 지어 생활해왔다. 그때부터 집짓기는 물리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형태를 만들기 위한 행위로 나타났다. 부족국가 단위로 적의 침입을 방어하고, 비와 눈과 추위 그리고 더위, 짐승의 침입을 막기 위한 기계적인 수단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결과로 전통건축은 각 시대를 거치면서 발전했다.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을을 중심으로 집은 그 마을의 부속품이 되었다. 처음엔 혈연관계로 상부상조의 정을 나누며 마을과 집안 분위기를 만들어왔다. 꼭 혈연이 아니라라도 타생반이 와도 이웃사촌으로 살았다. 이런 상황에서 집은 결합과 분리 그리고 채와 채로 각 용도가 분화되었다.

삶에서 집(가정)이란 단순히 공학적인 셈법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 가정(家庭)은 주택보다 따뜻한 이름이다. 가정은 정서적인 집을 의미한다. 집(가정, Home)이란 일상생활을 통하여 가족 간의 관계를 형성하며 인간의 본질인 인성과 인격이 완성되는 곳이다. 따라서 현대처럼 단순히 집을 공학적 개념과 채테크 개념인 주택으로만 한정하면 곤란하다. 인간은 어머니의 아기집에서 시작하여 집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성년을 거쳐 노년이 되어 결국 집(묘, 음택)으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일생동안 집의 영향은 매우 크다.

집은 인간과 같이 호흡하며 유기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과 똑같은 생로병사의 순환을 거친다. 이 순환을 거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건물과 함께 생로병사를 함께 해왔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주거공간이 주로 공동주택이 되었다. 통계에 의하면, 공동주택주거비율이 약 80%에 육박했다고 한다. 대부분의 현대 도시인들은 편리와 따뜻함, 그리고 보안의 이유로 아파트(공동주택)라는 주거공간을 선호하게 되어 그쪽으로 삶의 방식이 쏠린다.

비슷비슷하지도 않은, 아예 똑같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개성이 있거나 할까? 당초부터 “평형만 선택하면 모두 우리가 알아서 지어 줄게”라는 무언의 약속이다. 물론 필자도 아파트에서 산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단독주택에서 살고 싶다. 주말에는 시골집에 내려가서 텃밭도 가꾸며 쉰다. 그곳에 가면 모든 시름을 잊고 나를 나로 사는 것 같아 행복하다.

중국 여행할 때 가이드에게 들은 얘인데, 중국의 아파트분양방식은 ‘마이너스 옵션’ 방식이라 했다. 골조가 세워지면 그때부터 분양을 받은 후 소비자가 내부장식을 하는 방식이다. 분양받은 자가 완성이 어려울 때는 시공회사가 완성해 주는 조건이다. 그 제도는 그래도 조금 낫다. 우리나라 소비자(분양을 받은 자)들은 부동산가치만 따지고 사는 집이다. 그저 집이니까 사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의미의 집이 물리적인 주택(House)인 것이다. 스스로 소외당하고 스스로 고독하기를 바라는 것일까? 편리함만 찾다보면 그 끝은 어디인가?

이제 주거는 자신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면서 집을 짓고 가꾸고 살 때가 됐다. 국민소득이 낮을 때는 그 만큼 집의 재산적 가치에 치중했었다. 소유의 개념시대가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이제 국민소득 삼만불 이상 시대에는 소유의 개념보다는 주거의 개념으로 점점 바뀌어져야 할 때가 왔다. 그 래야만 집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오랜 세월 속에서 집 또한 여러 형태로 진화했다. 진화하는 과정에서 편리함과 안전에는 만족했을지라도, 가족 간의 정이 어우러져 사람의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집. 가풍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모두가 느꼈을 것이다. 점점 핵가족이란 이름으로 가족의 해체가 더 심해졌다고. 가족의 분화는 핵가족화의 부작용이다. 그렇다 보니 집의 구성도 변했다. 가정 교육이나 학교교육이 공동도덕과 효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설 때, 인본주의(휴머니즘)인 사람과 더불어 정이 가득한 가정이 될 것이다.

현대는 정서적인 면에서 척박하면서도 각박한 사회지만, 선조들은 엄격한 가부장제 아래에서 건물다움을 선호했다. 그래야 권위가 서는 것으로 알았다. 비록 수직적인 관계였지만, 인간적인 스케일로 정말 가정다운 가정을 꾸렸다는 의미이다. 기능적인 부분이나 구조적인부분도 아름다움을 추구했다. 집에 집중했다는 의미로 통한다. 건물의 본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건물과 인간의 상호접점을 찾는 것에 노력했다. 아니, 노력했다 기보다 자연스러운 표현이었다.

삼국시대 이후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하층 백성들은 대부분 초가집에서 살았다. 가난한 백성들은 기와집을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초가삼간이라도 내 집이면 행복해 했다. 초가삼간도 없는 백성이 많았기 때문이다. 가난한 초가삼간 집에서의 애환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우리민족은 재주가 뛰어나 인위적인 과장을 피했다. “과한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둔 모양이다. 하나의 대상에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여 표현하는 지혜를 발휘했다. 그런데도 하층민들은 반상(양반과 상민)의 사회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자기 삶에 만족해야 했다. 그러므로 집에 대한 애착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전통건축은 요즘의 서구식 기준으로 보면 미완성 같은 느낌을 준다. 조금부족하다 싶은 부분은 살아가면서 채워간다. 이것이 집이고 가정인 것이다. 그래서 한옥은 우리의 전통사상과 정신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건축사들이 집을 설계할 때 전통적인 집에 대한 인문학적 개념을 활용해서 설계하면 아주 좋을 것이다. 이제는 단순 물량위주의 건축에서 벗어나 건축의 품격을 인문학적으로 접근하여 한 차원 높게 설계할 때가 왔다.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강필서, 이경일, 이성열
편집인 임현정
자문위원 서재형, 정명환, 강동영, 박종호, 박주현,
임태형, 허만수
전담기자 김종문
편집위원 정영진, 김미리, 김종원, 강성규, 최기성,
설혜순, 오선화,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전준홍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고신청 T. 062)521-0026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 1만원부터
- 후원방식 : 신탁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
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등)

- 원고마감 : 매달 5일
문의 : 광주건축사회(T. 062-521-0026 / gjkira@empas.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건축사를 기록하고, 건축사의 자부심을 말하다.

담 건축사사무소 김종왕 건축사와의 만남

건축문화사랑 ‘건축사 인터뷰’는 광주·전남·전북 지역 건축사들의 걸어온 이야기를 전한다. 삶의 에피소드와 건축사사무소 창업기 및 앞으로의 포부를 동료이자 선후배 건축사들에게 전하여 소속감과 연대의 가치를 느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김종왕 건축사(전북)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익산시에서 담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건축사면허를 취득하고 개업은 2006년에 했으니 꼬박 2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90년도 초반 수작업으로 설계를 배웠고 군시절 공병부대 설계병으로 복무,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실무를 놓아본 적 없이 건축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쉽지가 않았지만 언제쯤 좋은 건축을 해볼 수 있을지 아직도 요원하고 건축을, 설계할수록 이 일은 어렵기만 합니다.

지나고 보면 제가 건축을 접하는 창구는 책이었습니다. 매달 정기구독하던 건축 서적은 군복무시절에도 이어졌습니다. 요즘은 책 욕심에 읽기보다는 주로 책을 구입해 놓는 편입니다. 근래 읽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 하는데요. 짧은 글을 곱씹는 맛을 안 뒤로 시집을 더 찾게 되더군요. 시에 관심을 갖고 싶다면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를 권해드립니다. 그중 천상병 시인을 좋아합니다.

취미로 사진을 배우며 부족하지만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진득하지 못해 실력은 제자리를 맴돕니다. 근래 ‘건축사가 건축사를 기록하다’라는 선배 건축사들을 기록하는 책자를 만드는 일에 프로필 사진을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Q. 건축사사무소 이름명을 만들 때 어떤 의미를 두고 하신건지 궁금합니다.

2006년도 개업했을 때 녹건축사사무소라는 이름을 2012년도에 담 건축사사무소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누구든 사무실 이름을 짓는다는 건 많은 고민과 또 의미를 갖고 싶을 텐데요, 저 또한 어떤 이름으로 의미를 담아야 할지 쉽지 않더군요. 또 그 무렵은 동업을 하다 혼자 하게 되면서 정신없고 힘든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차 안에 책을 두고 읽곤 했는데 마침 읽던 책이 “채근담(菜根譚)”이라는 중국 명나라 말기 홍자성이라는 저자의 책입니다. 얇은 책이고 짧은 글들을 정리한 내용인데 아 마도 힘든 시기여서였는지 곁에 두고 자주 읽곤 했습니다. 사무소 명칭의 “담(譚)”이라는 글자는 책 제목의 끝 글자입니다. 이야기하다는 의미가 있어 생각해 보니 건축설계를 하는 일이 클라이언트와 많은 이야기를 하며 결국 교감하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담 건축사사무소”라고 짓게 됐습니다. 지금도 주변 지인들은 다른 뜻으로? 오해하고 있어 이 지면을 빌어 그게 아니라고 설명드려야겠네요.

Q. 실제 업계에 몸담으면서 느낀 애로사항이나 건축사 업무 시 불편 사항 등 제도적 개선점을 제시한다면?

어릴적 건축을 배우던 시기와 지금의 건축은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건축사와 건축주의 관계는 분명 비대칭이었습니만 지금은 자재, 공법, 법령 등 건축을 위한 모든 걸 쉽게 접하다 보니 건축주들도 전문가가 다 돼서 옵니다. 설계 의뢰로 협의를 하다 보면 건축주들은 너무 열성적이구나 나보다 더 공부를 하고

오시는구나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부작용으로 그 정보들이 모두 옳고지 않고 때로 왜곡되거나 불법, 편법을 조장하는 경우입니다. 거르지 못한 정보는 오히려 독이 되곤 합니다. 사전에 잘못 입력된 선입견을 바로잡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곤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건축설계나 건축 자체를 너무도 쉽게 여기게 되는 데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협회에서라도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사협회의 유튜브나 인스타 등 홍보를 꾸준히 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들끼리만 보고 있는 건 아닌가 할 때가 있습니다.

Q. 본인이 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은 건축물이나 건축인이 있으실까요?

93년도쯤이었을 텐데요. 건축사사무소에 취업했을 때 한 달 치 월급을 털어 해외건축가들 책자를 묶음으로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루이스칸, 프랭크로이드라이트, 알도로시, 헬무트안, 에로사리넨... 뭐 제겐 위인전급이었는데요. 너무도 강렬해 지금도 사진처럼 머릿속에 박혀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뭐든 넘쳐나는 지금과 다르게 그 시절 책은 막연하게나마 건축을 꿈꾸며 공부하는 유일한 창구였습니다. 그땐 멋 모르고 건축이 너무도 막연하기만 했습니다.

그중 루이스칸의 건축을 좋아하고 동경합니다. 처음 봤을 때 굵은 선을 본 것 같은 느낌의 건축과 강렬한 대비의 빛과 그림자는 어설프기만 한 풋내기의 머릿속에 더 깊이 각인 됐습니다. 꽤 오래전 교회건축 견학 때문에 텍사스 달라스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달라스에 김벨미술관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후 다녀오지 못한걸 내내 아쉬워합니다.

Q. 앞으로의 계획과 선·후배 동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 있을까요?

건축설계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개정되는 법령들, 점점 발전되는 설계툴과 자재, 공법 등... 전문가라고 자처하려면 그에 뒤떨어지지 않게 더 공부해야겠습니다. 요즘은 대세로 떠오르는 AI도 쉬이 시작이 안됩니다. 계속 사두기만 한 책들도 이제는 좀 읽어야겠는데 항상 변명이 먼저입니다.

지역건축사회 이사회 업무를 몇 년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협회의 이런저런 행사에 되도록 참석하는 편입니다. 친목을 위한 모임이라면 상관없겠습니다만 건축사협회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법정단체로 소속 건축사는 그에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협회의 각종 행사에 소속 건축사들의 참여는 너무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간혹 그 행사에 참석한 내빈들에게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지금도 건축사라는 명칭보다 설계사나 소장님으로 불리는 현실은 우리 스스로의 무관심이 만든 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서로에게 자부심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담 건축사사무소 내부



카페 링크



고창단독주택



오리온농협밀양공장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익산남중동우체국

정 옥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정건축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94, 4층 401호 / Tel. 063-228-06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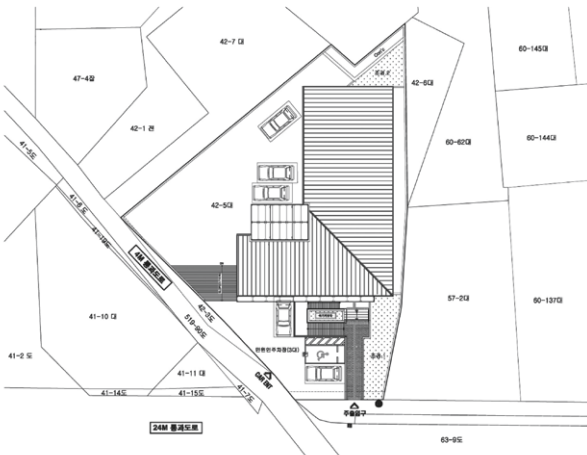


대지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남중동 42-5번지 / 대지면적 : 1,028㎡ / 건축면적 : 353.10㎡ / 연면적 : 353.10㎡
주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우체국) / 규모 : 지상 1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마감 : 압출성형시멘트패널, 고벽돌치장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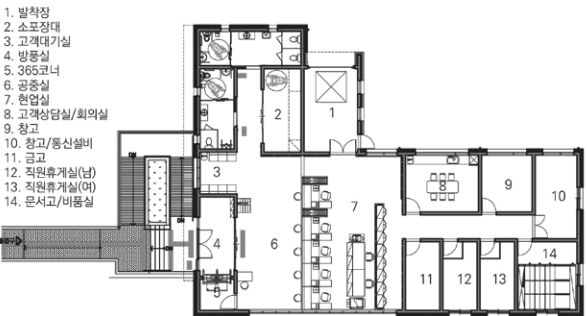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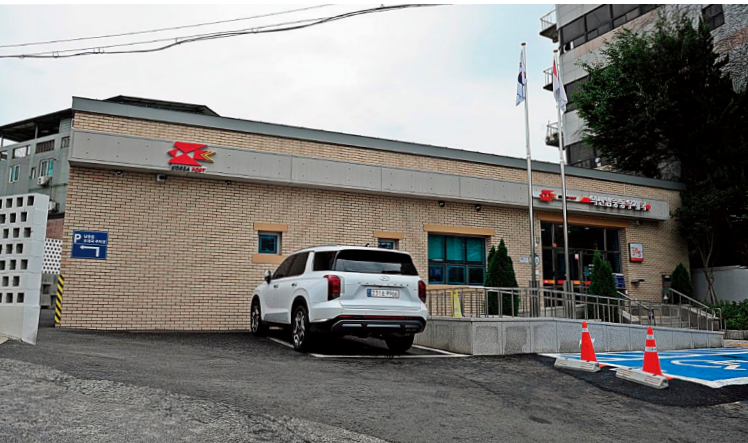
본 대지는 전/후면의 대지고저차(약 1M)를 경사면으로 해소하고 협소한 기존주차장 개선을 위해 동쪽 인접대지 부분의 폭 3M의 조경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였다. 동시에 민원인 주차장(정면)과 직원용 주차장(배면)을 서로 분리시켜 동선을 재조정하였다.

평면계획에서는 영업공간(공중실, 영업실)과 물류공간(발착실, 물류창고), 후생공간(휴게실, 회의실)의 서로 다른 기능을 분리하여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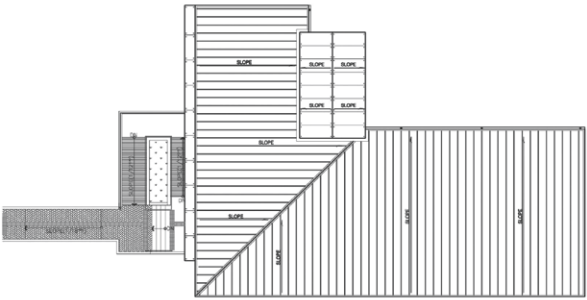
입면 재료의 마감은 압출성형시멘트패널(노출형)과 백고벽돌, 청고벽돌을 사용하여 모던하면서도 심플하게 보이도록 통일된 컬러감으로 재료계획을 하였다. 청고벽돌은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밝은 색상과 어두운 색상의 대비를 이용하여 발착실과 돌출된 입면을 강조하였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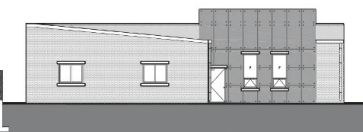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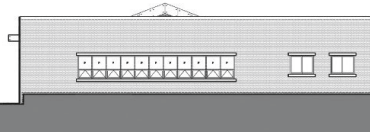
지붕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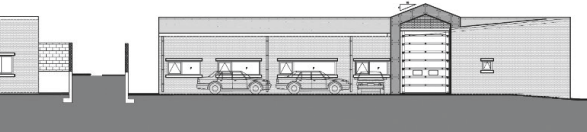
정면도



배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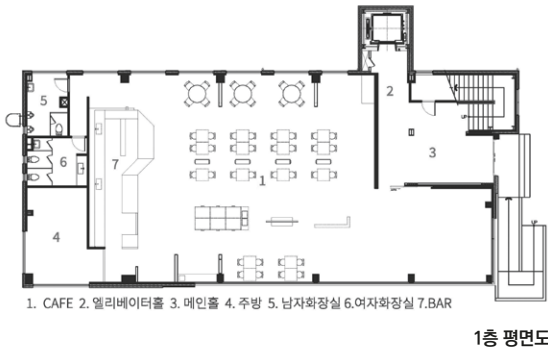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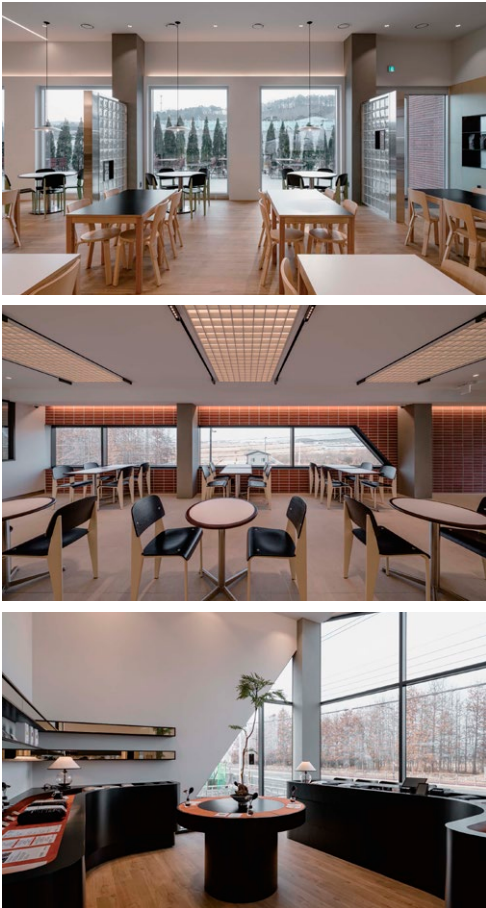
광주광역시건축사회

HYPER STAND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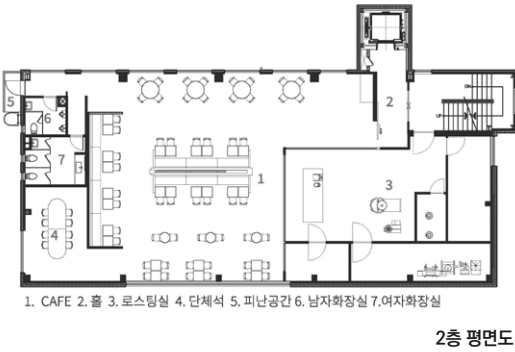
김대영 건축사 / 인우 건축사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10, 첨단 마루힐BC A동 403호 / Tel. 062-945-54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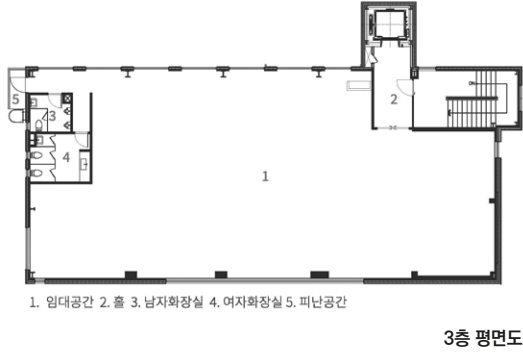
대지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본촌동 762-1 / 대지면적 : 2061.00㎡ / 건축면적 : 327.68㎡ / 연면적 : 983.04㎡ / 건폐율 : 15.9%
용적률 : 47.7% /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 / 구조 : 철골구조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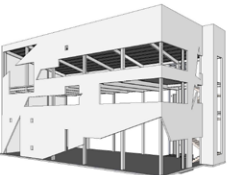
Concept / Overview

지속가능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선택적 커(Layer)의 재구성
보존 / Exis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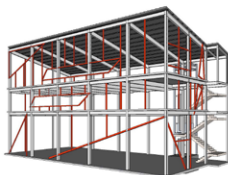
노후 건축물의 물리적 한계 및 잠재력 파악
기존 3층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 건물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분석, 전면 철거를 지양하고,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건축적 개입의 기준점과 보존 범위를 설정하는 초기 단계.

선택적 해체 Selective Demolition



신설 계구부 위치만 절개. 나머지는 남긴다
내부 공간의 재광 요구 및 파사드 비례 재구성에 맞춰 기존 외벽을 국소적으로 절단. 기하학적 형태의 계구부를 제공하여 기존의 폐쇄적인 입면에 새로운 시각적 열림(Opening)을 부여.

구조 고도화 Structural Reinfor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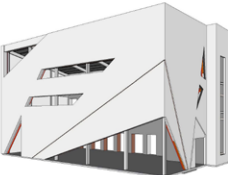
철골 보강 + 내화피복 보수. 하중과 안전의 재정의
외피 변경 및 코어 신설로 인한 하중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철골 프레임의 결함부를 중점적으로 보강. 동시에 노후화된 내화 불합을 보수하여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과 화재 안전성을 최신 기준에 맞게 복원.

재사용 / Retention



가치 공학에 기반한 폐기물 저감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으로, 기존 마감재인 판넬을 철거하지 않고 신규 외장재의 1차 바탕재로 유지. 철거 비용과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프로젝트의 핵심 전략.

성능의 덧셈 / Upgrade



중불연 단열재 부착. 에너지 효율 극대화
평활한 기존 바탕재 위에 현행 법규를 충족하는 두께의 중불연 단열재를 밀착 부착. 건물 전체를 감싸는 열교 차단(Thermal Break) 설계를 통해 물리적 단열 성능과 기밀성능 확보.

최종 외장 / Final Facade



경량 마감재 적용 및 디자인의 완성
기존 철골조에 가해지는 하중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량 소재인 스타코(Stucco)를 최종 마감. 신규 단열 장호 및 투면 돌출 크기의 결함을 통해, 기능과 미학이 완전히 경진된 새로운 건축물로 탈바꿈.

전라남도건축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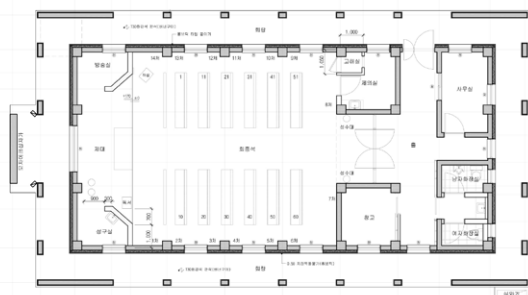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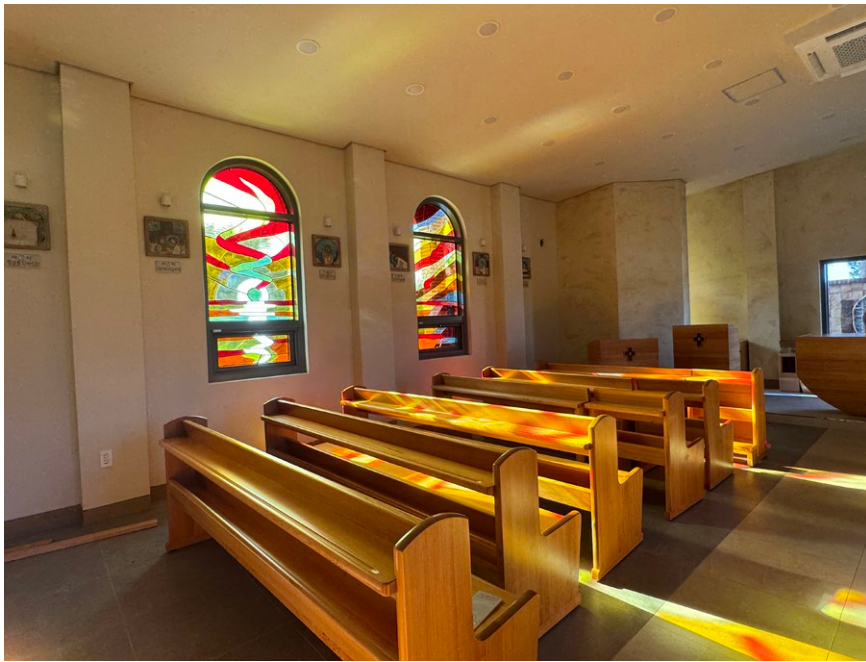
진도진길성당 조도공동체(公所) 신축공사

조하니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해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남평읍 강변1길 65-13, 2층 / Tel. 061-332-9190



대지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창유리 531번지 / 대지면적 : 1,317.00㎡ / 건축면적 : 243.60㎡ / 연면적 : 243.60㎡
건폐율 : 18.50% / 용적률 : 18.50% / 주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 규모 : 지상 1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마감 : 롱브릭타일

진도 진길성당 조도공동체는 조도면 창유리 부지에서 ‘하조도公所’로 유지돼 왔으나,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로 신축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현 부지에서 기공식을 갖고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을 알렸다. 언덕 위에서 조도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지형적 특성과 주변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건축물의 형태와 배치를 계획했다. 단순하면서도 입체적인 공간을 구현하기 위해 건축물의 네 면을 감싸는 회랑을 조성하고, 해가 뜨고 지는 시간에 따라 빛과 색이 달라지는 스테인드글라스를 적용했다. 또한 내부에 일반적인 십자가를 배치하는 대신 창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모자이크 십자가를 설치해 내·외부 어디서든公所의 상징성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주변 자연과 빛을 건축의 일부로 끌어들이어 예배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머물고 교류하는 공간이자 조도공동체의 새로운 구심점이 되도록 계획했다.



1층 평면도

광주건축사회-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청렴 건축 업무협약 체결

건축행정 투명성 강화와 인허가 제도 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



광주건축사회(회장 강필서)와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동 구(청장 임택)는 청 렬하고 투명한 건 축행정 구현을 위 해 지난달 16일 동 구청 3층 구청장 접견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필서 회장과 임택 동구청장, 박진호·김민호 부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청렴 건축’ 파트너십 구축에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건축행정의 공정성과 투 명성을 높이고 부패를 예방하는 한편,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축행정 환경을 조 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자문, 건축행정 관련 정보 공유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특정 건축물 양성 화 지원을 위한 상담실을 함께 운영하는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도 이어갈 계획이다. 강필서 광주건축사회장은 “청렴한 건축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건축계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건축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행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건축행정은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하 게 연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광주건축사회와 긴밀 히 협력해 청렴한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고, 구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건축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건축사회, 제2회·3회 통합추진위원회 개최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조직 운영 방향과 회원 권익 보호 방안 모색



광주건축사회와 전남건축사회는 지난달 23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통합추진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양 회의 통합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23일 광주건축사회관 4층 소회의실과 30일 순천 호남호국기념관에서 각각 열렸 다. 강필서 광주건축사회 회장과 이경일 전남건축사회 회장을 비롯해 양 회 통합추 진위원 14명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구역 통합 에 대응해 건축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협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운 영 방향을 검토하고자 마련됐다. 행정구역 통합 이후 예상되는 협회 운영상의 변화 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양 지역 회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하는 데도 목적을 뒀다. 참석자들은 양 회의 조직과 회원 현황을 공유하 고, 건축사회 통합 추진에 필요한 절차와 주요 검토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양 회가 각각 운영해 온 조직과 업무체계를 살펴보고, 향후 통합 또는 협력체 계 구축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을 논의했다. 또한 각 지역의 업무 여건과 특성 을 고려한 조직 운영 방안을 비롯해 통합 이전 단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공동사업 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원 들의 혼선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단계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광주건축사회, 제23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그림그리기대회 개최

전남·광주소재 어린이들이 참여해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도시 그려



광주건축사회가 주관한 ‘제23회 광주건축·도시문화 제 그림그리기대회’가 지난 달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남광주통합특 별시 광주청사 1층 시민홀에 서 개최됐다. ‘똑딱똑딱 히어로! 내가 만드는 안심 광주’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 는 전남·광주 지역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학부모 등 60여 명이 참여했다. 어린이들은 자신이 꿈꾸는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의 모습을 각자의 시선과 개성으로 도화지에 담아내며 풍부한 상상력을 펼쳤다. 이번 대회는 어린이들이 건축과 도시환경을 친숙 하게 접하고, 생활 속 안전의 중요성과 자신이 살아갈 미래 도시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출품작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한 뒤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강필서 광주건축사회장은 “어린이들의 참신한 생각 이 담긴 작품을 통해 미래 도시의 다양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며 “이번 대회가 어 린이들이 건축과 도시공간에 관심을 갖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건축사회, 신수정 신임 북구청장 간담회 개최

건축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 방안을 논의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과 김민호·박 진호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은 지난 달 2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을 방문해 신수정 신임 북구청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건축사 회와 북구청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건 축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건축 인허 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축계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건축행정 서 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건축계 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의견 교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 하고 합리적인 건축행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강필서 회장은 “회원 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지역 건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 관 계 기관들과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건축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북구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원&조선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 광 원

- 전남 영광 출생
- 광주국제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
- 순천시청 건축 별점 심의위원
- 전남개발공사 준법감시 위원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선정(2022년)



변호사 조 선희

- 전남 강진 출생
- 전남대 법학과 졸업
- 전남대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수료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
- 현) 광주자치경찰 위원
- 현) 대한변협 대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동명로 102-2, 3층 T. 062)234-7417

전남건축사회-함평군, 경제 부담 완화 재난 피해 주택 복구 '맞손'

재난피해주택 건축설계비·감리비 감면 업무 협약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시 함평군은 자연재난으로 주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주택 복구 부담을 덜기 위해 건축 전문가 단체와 지원체계 구축에

나섰다. 함평군은 24일 군청에서 전라남도건축사회와 재난 피해 주택의 건축 설계 및 공사감리비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남오 함평군수와 이경일 전라남도건축사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자연재난으로 주택이 반파 또는 전파된 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게 주거를 복구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전라남도건축사회는 재난 피해 주민이 주택을 새로 짓거나 기존 주택을 개축할 경우 건축설계비와 공사감리비를 각각 50% 감면한다. 건축허가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설계와 감리 비용 부담을 줄여 피해 주민들의 조기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함평군은 대상 주민들에게 감면 혜택을 적극 안내하고, 지원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건축사회와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행정기관과 민간 전문가 단체가 협력해 재난 대응과 복구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한편 전라남도건축사회는 재난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강진군, 영광군과도 주택 신축 지원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건축사회는 설계·감리비 감면과 건축사 참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재난 피해 주택 복구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전남 광양지역건축사회, 주거 지원 '찾아가는 건축학교' 운영

신규 전입자 주거 부담 완화하고 학생 진로 탐색 지원



전남건축사회 광양지역건축사회가 광양시와 협력해 신규 전입 세대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지역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주택 신축 설계비 감면사업은 1년 이상 다른 지역

에 거주하다 광양시로 전입할 예정인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자가 광양지역에 100㎡ 이하 규모의 주택을 신축할 경우 설계비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광양시 허가과에 신청서를 제출해 대상자로 선정된 후 광양지역건축사회가 지정한 건축사와 감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주택 준공 후 3개월 이내 광양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혜택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축학교'를 운영한다. 지역 건축사들의 전문 지식과 재능기부를 바탕으로 건축의 역사와 세계 건축물, 건축가 등에 관한 이론교육과 건축 모형 제작 체험을 진행한다. 지난 해에는 초등학교 5곳에서 학생 140명이 참여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6개 학교에서 학생 160명이 교육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참여 대상을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해 건축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진로 탐색 기회를 넓혔다. 하반기 참여 학교는 광양교육지원청을 통해 신청받아 선정할 예정이다.

전남건축사회, 건축 비주얼라이제이션 AI 재직자 교육 성료

지역 건축사의 인공지능 AI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사진 = 전남 서부권 교육)

전라남도건축사회는 목포대학교 RISE사업단과 함께 지난 7월 7일과 10일 서부권과 동부권에서 '건축 비주얼라이제이션 AI 재직자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스마트시티 ICC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지역 건축사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서부권 교육은 7월 7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글로벌스타트업센터 컨벤션홀에서, 동부권 교육은 7월 10일 순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00호에서 각각 진행됐다. 교육은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눠 각 3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목포대학교 RISE사업단 강사가 생성형 AI의 실무 활용 방법과 건축설계 업무 효율화, 건축 시각화 분야의 적용 사례 등을 중심으로 심화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설계 아이디어 구상부터 이미지 생성과 건축 비주얼라이제이션까지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AI 기술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이날 교육에는 서부권 140여 명, 동부권 160여 명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라남도건축사회는 앞으로도 지역 건축사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고 실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 순천지역건축사회-순천시와 재난 피해주택 신축지원 업무협약 체결

건축 행정절차 신속 지원·설계 및 감리비 50% 감면으로 일상 회복 도와

순천시는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순천지역건축사회와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각종 재난으로 주거지를 잃거나 주택이 파손된 시민들이 복구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주택 신축을 비롯한 복구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순천시는 재난 피해주택의 건축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순천지역건축사회는 참여 건축사를 피해 시민과 연계해 주택 신축에 필요한 설계·감리 업무를 지원하고, 설계·감리비의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피해 사실 확인부터 건축사 연계, 건축허가와 주택 신축에 이르기까지 복구 과정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민관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재성 순천지역건축사회 회장은 "이번 협약이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건축사들과 함께 설계·감리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주거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객을 기쁘게 세상을 이롭게
반석기초이앤씨(주)

GeoCon (방재신기술)
침하지반보강/복원
EcoSM 지반개량
마이크로파일
팽이기초공법
로타리파일(헬리컬)
강관압입파일



New, Different, Better

호남지사장 / 이사 김 유 성

010. 5007. 8437

3rsinhwa@hanmail.net

전화 070-4482-0257 팩스 062-975-0140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와이어스파크 A동 1114호(오룡동)

INNOBIZ기업 | ISO 9001인증

본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고재로 141-16

전화 031-577-1673 팩스 031-577-1674

www.bs-base.co.kr

전북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건설 관련 단체 잇따라 방문...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전주시는 지난달 30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와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를 차례로 방문해 지역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시 건축과장과 도로사업 행정지원단 관계자들이 건설업계의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도내 지역건설업체 현황과 최근 수주 실적 및 향후 전망, 대규모 공사 추진 상황,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에 대비한 시·군별 현황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지역 건설업계가 직면한 어려움과 현안을 공유하고, 공공공사 추진 과정에서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건설단체 관계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각종 공사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지역업체가 협력업체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사업 추진 단계부터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이성열 회장은 “지역 건축사사무소의 참여 확대는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전주시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가 실질적인 수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지역건축사회, ‘건축물 해체 안전’ 주제로 제2차 포럼 개최

건축물 해체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

전주지역건축사회는 오는 8월 27일 오후 2시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사회관 6층 세미나실에서 ‘건축물 해체, 안전을 계획하다’를 주제로 제2차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계획서 작성과 현장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안전한 해체를 위한 해체계획서 작성 실무와 해체감리 경험, 해체계획서 작성에 따른 적정 대가 산정 등을 중심으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2부에서는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건축물 해체 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과 실무상 애로사항 등에 대해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전주지역건축사회 박광성 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중요성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전북도,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시행... 절차 거쳐 합법 건축물로 전환



전북특별자치도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오는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18개월 동안 위반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제도를 시행한다. 양성화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다. 구체적으로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과 660㎡ 이하 다가구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이 해당한다. 신청을 원하는 건축주나 소유자는 건축사를 통해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작성한 뒤 관할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30일 이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구조와 소방·방화 안전 등에 중대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양성화 절차가 진행된다.

전북 김제시,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건축 설계공모 실시

추모·휴식·자연이 어우러진 공공형 추모공간 조성



김제시는 시민들의 장사시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품격 있는 추모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김제시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건축 설계공모를 실시한다. 공설추모공원은 총사업비 266억원을 투입해 김제시 성덕면 성덕리 일원 약 3만6,000㎡ 부지에 조성된다. 총 2만 기를 안치할 수 있는 보안당과 자연장지를 비롯해 유족동산, 주차장, 휴게시설 등을 갖춘 친자연적 장사시설로 건립할 계획이다. 이번 설계공모는 단순한 안치시설을 넘어 추모와 휴식,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공공형 추모 공간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심사 기준은 자연지형을 고려한 시설 배치, 추모 공간의 품격과 상징성, 외부공간과 연계한 통합적 공간 구성, 이용자 중심의 동선 및 운영체계 등이다. 참가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마친 자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건축기술 향상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건축사사무소가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도내 사무소와 공동 응모할 경우 참여 비율 30% 이상을 기준으로 가점이 부여된다. 공모는 제안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가 등록을 거쳐 오는 9월 7일까지 작품을 접수한다. 이후 9월 21일 심사를 실시하고 같은 달 23일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제시는 당선작이 확정되면 오는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 2028년 착공, 2030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 회원동정	회원현황 : 477명 (2026. 8. 10. 기준)
• 입회	- 류광환 건축사 / 새로고침 건축사사무소 / 전남광주시 북구 무등로202번길 6, 103호 - 박세현 건축사 / 사이하이 건축사사무소 / 전남광주시 북구 향토문화로 36-22, 102호 - 김 건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새벽 / 전남광주시 남구 천변작로338번길16, 406호 - 장원재 건축사 / 새롬 건축사사무소 / 전남광주시 북구 첨단연신로 45, 첨단리채비즈타워지식산업센터 4층 409호
• 재입회	- 이창환 건축사/ 청라 건축사사무소 / 전남광주시 북구 무등로 255, 3층
• 결혼	- 유준호 건축사 / (주)포스트 건축사사무소 / 자녀(딸) 결혼 - 2026년 8월 22일(토) - 김한일 건축사 / 신라 건축사사무소 / 자녀(딸) 결혼 - 2026년 9월 5일(토)
전남 회원동정	회원현황 : 489명 (2026. 8. 10. 기준)
• 입회	- 이은유 건축사 / 아인안더 건축사사무소 / 전남광주시 목포시 후광대로105번길 17-8, 1층 - 김용기 건축사 / 가교 건축사사무소 / 전남광주시 순천시 왕지로 2, 3층
• 퇴회	- 최재은 건축사 / 우리 건축사사무소 / 전남광주시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17, 3
• 변경(소재지)	- 김건용 건축사 / 정민 건축사사무소 / 전남광주시 광양시 도이6길 4, 1층 - 노광수 건축사 / 선담해 건축사사무소 / 전남광주시 목포시 송림로 18-51
• 부고	- 박환호 건축사 / 무용건축사사무소 / 빙모상 - 2026년 7월 7일(화) - 황종하 건축사 / 양지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2026년 7월 11일(토) - 변형우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가인 / 빙부상 - 2026년 7월 25일(토)
전북 회원동정	회원현황 : 530명 (2026. 8. 10. 기준)
• 입회	- 최상균 건축사 / 마름모 건축사사무소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58, 1층 102호 - 안성섭 건축사 / (주)두리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출판로 84, 3층 302호
• 전입	- 조상연 건축사 / (주)유림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21-25, 3층

행정구역은 하나가 됐지만, 건축행정은 아직 두 갈래

지난 7월 1일 전남과 광주가 통합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라는 새로운 행정체계가 출범했다.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기 위한 큰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명칭과 행정구역이 하나가 됐다고 해서 모든 제도와 기관의 업무가 곧바로 통합된 것은 아니다. 특히 건축 분야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전남과 광주의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가 적용되고 있어 적지 않은 혼선이 예상된다. 현재 전남건축사회와 광주건축사회는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 관리와 사무소 개설신고, 교육, 민원 대응 등 주요 업무체계도 서로 다르다. 건축조례 역시 기존 전남과 광주의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르게 마련돼 있어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심의 기준, 각종 위원회 운영, 제출서류와 행정절차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같은 특별시 안에서도 어느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느냐에 따라 적용 기준과 담당기관이 달라지는 상황이다. 입찰 참여 자격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번호의 인정 범위, 행정기관별 민원 처리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으면 업무 지연은 물론 불필요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통합의 취지가 행정 효율성과 지역 균형발전에 있는 만큼, 현장에서 혼란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다만 기존 제도를 단기간에 일률적으로 합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전남의 넓은 농어촌 지역과 광주의 도시적 특성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 지역의 제도와 업무를 면밀히 비교하고, 각자의 장점과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통합 건축조례와 행정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통합 과정에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전남·광주건축사회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 누구나 동일한 기준 이해하고 예측 가능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여 통합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 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남·광주건축사회 간 업무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협회 내 소통창구가 마련되길 바란다.

〈본 글은 익명의 지역 건축사가 투고한 의견입니다.〉

건축사자격시험, 2032년 종합 역량평가로 전면 개편

국토교통부가 2032년부터 건축사자격시험에 필기시험을 도입하고 실기시험 비중을 줄이는 자격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자의 응시 자격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5년제 건축학과 등 인증 학위 이수자를 중심으로 시험제도를 재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는 인증 학위를 이수하고 3년 이상의 실무수련을 마친 사람 등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은 연 2회에서 매년 3월 초 연 1회로 조정된다.**

2032년부터는 도면 작성 중심의 실기시험에 건축 법규와 관계 기술, 구조·안전 등 실무 지식을 평가하는 객관식·서술형 필기시험을 결합한 '종합 역량평가' 방식이 도입된다. 실기 과제는 기존 5개에서 2개로 줄고, 답안지는 눈금이 적용된 B4 크기로 변경돼 제도판 없이 작성할 수 있게 된다.

과목 합격자의 면제기간은 2031년까지 현행 '5년 내 5회'가 적용되며, 2032년부터는 '3년 내 3회'로 조정된다. 실무수련 제도는 2028년 신고자부터 강화된 체계가 적용된다. 수련 항목은 16개에서 20개로 세분화되고 세부 업무는 45개로 구체화된다. 수련 관리 단위는 기간에서 일·시간 단위로 전환되며, 최소 수련일수는 기존 465일에서 420일로 단축되나 3개월마다 수련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등 검증이 강화된다.

건축사 시험, 내년부터 연 1회...2032년 필기 도입

구분	현행	개편
응시 자격	예비시험+실무 5년	인증학위+실무수련 3년(2027년)
시험 횟수	연 2회	연 1회(2027년)
시험 방식	실기 3과목	필기 2과목+실기 1과목(2032년)
실기 문항	5문제	2문제(2032년)
과목 합격	5년 내 5회	3년 내 3회(2032년)
실무수련	465일	420일(2028년)

국토교통부 지정 건설기술인 종합교육기관

해체공사 감리업무 신규교육·보수교육

“해체감리업무를 위한 실무교육
세종·충남·충북·대전권 접근 편리”

세종

전주

광주

광양

세종·전주·광주·광양
편리한 교육 접근성!

교육 특징

- 기본교육·최초교육·
승급교육·계속교육
체계적인 교육과정
- 실무 중심의 전문 강사진
이론 + 현장 실무
노하우 전수
- 국토교통부 지정
공신력 있는
전문 교육기관

안전사고 예방

환경오염 최소화

비산먼지·소음·진동 관리

해체계획서 이행 점검

전문성으로 **안전**을 지키고,
교육으로 **가치**를 더합니다.

재단법인 대원산업기술교육원
건설기술호남교육원

일정확인 | <https://www.hicte.or.kr/>
교육문의 | 062-513-0116

우산동 뉴빌리지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설계공모

우산동 1023-6번지 주변은 5,500여 가구가 위치한 주거밀집지역이나, 주민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민 소통의 공간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대상지 주변에 주민커뮤니티 활동을 위하여 주민커뮤니티 기능 보강을 위한 최적의 거점시설인 우산동 뉴빌리지 복합문화돌봄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심사위원 : 박민철(영빈 건축사사무소), 김행우(㈜건축사사무소 공간), 김재호(건축사사무소 휘람), 김선웅(소강 건축사사무소), 이한근(건축사사무소 제이엘), 박만철(㈜한국구조안전기술), 김선규(현대건설㈜)

- 대지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우산동 1023-6, 1023-25
 - 대지면적 : 757.7㎡
 - 연 면 적 : 1,625.86㎡
- 규 모 : 지상 5층
 - 구 조 : RC조
 - 주요마감 : 와이드벽돌, 라임스톤, 로이복층유리

당선작
김충모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D&D(광주)



한 편의 시 _ 濟堂 추원호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세한도의 노송

찬 바람 백리 밖에 머물고
설한(雪寒)은 깊어
산천은 고요히 잠들었네

초라한 자옥한 채
들녘에 기대어 서고
늙은 노송(老松) 한 그루
푸르렀던 기개 그대로 살아있구나

칼날 같았던 찬 서리
가지에 고스란히 스며있고
달빛 줄기 껍질 속에 내려앉아도
휘어진 허리 더욱 굳세어
한 치 푼도 꺾이지 않았네

세상인심 세월 따라 변하지만
雪深의 푸름은 고목에 잠기고
님은 떠나 소식 끊긴 뒤에야
참된 절개 비로소 드러나네
오늘도 노송 아래 절개 생각하며
메마른 솔향기 가슴에 품으니
세한(歲寒)의 말 없는 자태 속에는
한 사람의 울분은 마음만
천년 그림으로 남아 있구나.



책 소개 _ 김다현 학생기자 / 조선대학교 건축학과(5년제)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김수현 / 하이스트 / 2022. 11. 25.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감정을 경험한다. 기쁜 순간도 있지만 이유 없이 예민해지거나, 피곤함 때문 가까운 사람에게 날카로운 말을 건네는 순간도 있다. 문제는 감정 자체가 아니라 순간의 기분이 말과 행동을 결정할 때 생긴다. 이 책을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는 방법을 이야기하기보다, 순간의 기분과 내가 선택하는 태도를 구분하고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하루를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기분'과 '태도'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기분은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는 감정이지만, 태도는 그 감정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가깝다. 우리는 화가 났다는 이유로 말을 함부로 하거나, 피곤하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에게 짜증을 내기도 한다. 하지만 순간의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어도 그때 내뿜은 말과 행동이 남긴 흔적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은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감정에 따라 움직여 버린 태도일 수 있다는 것이 책이 전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다.

이 책을 읽으며 가장 생각하게 된 부분은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이 감정을 무조건 참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누구나 화가 날 수 있고, 속상할 수도 있으며, 힘든 날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느끼는 순간에도 내가 어떤 태도를 선택할 것인지 생각하는 것이다. 저자는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감정과 태도를 구분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하루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결국 감정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순간적인 반응일 수 있지만, 그 감정에 어떻게 행동할지는 어느 정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는 특별한 성공 공식이나 거창한 인생의 목표를 제시하는 책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말과 행동을 돌아보게 한다. 하루의 기분이 그날의 행동을 만들고, 하루하루의 행동이 쌓여 인간관계와 삶의 방향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바라보고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관리하는 일과 연결된다. 출판사 역시 하루의 기분과 그에 따른 행동이 쌓여 미래와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점을 이 책의 중요한 메시지로 소개하고 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는 결국 '어떤 기분으로 하루를 보내느냐'보다 '그 기분 속에서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누구나 감정에 흔들릴 수 있지만, 그 순간의 감정이 나의 말과 행동 전체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둘 필요는 없다. 화가 나도 한 번 더 생각하고, 힘든 순간에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 노력하며, 감정이 아닌 자신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작은 선택들이 결국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일상 속에서 감정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거나 지나간 행동을 후회했던 경험이 있다면, 이 책은 자신의 감정과 태도를 다시 바라보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

한 장의 사진 _ 봉한샘 /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5학년



전남광주 동구 문화전당로 38, 문화창조원 2F